

01 의무론과 칸트주의

학습 목표 • 의무론의 특징 및 칸트 윤리 사상의 장점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 현대 칸트주의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의무론과 칸트 윤리 사상

우리는 수많은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와 같은 의무에 따라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이론을 의무론이라고 한다.

5 의무론은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한다. 어떤 행위에 있어 산출하는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행위의 동기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따르는 것이라면 그 행위는 옳은 것이 된다.

또한 의무론은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본래 옳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본래 그르다고 주장한다.

10 그리고 의무론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은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무론의 대표적인 인물은 칸트이다. 칸트는 자연에는 자연법칙이 있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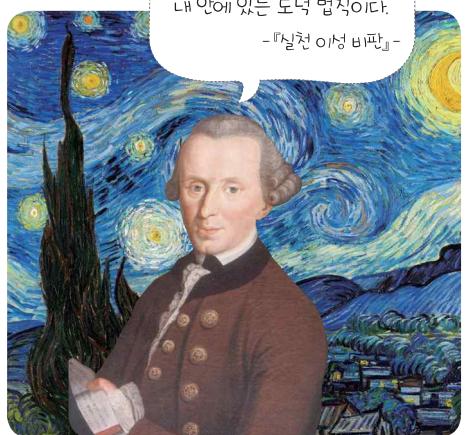
15 도덕 법칙은 우리 안의 실천 이성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실천 이성이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생각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을 말한다.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을 따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칸트는 인간을 자율적 존재라고 보았다. 그리고 칸트는 자율적 존재로서 인간은 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20 이 세계에서 또는 도대체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

선의지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으로,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다. 즉 어떤 것이 의무, 즉 도덕 법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마땅히 돋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선의지이다.

내가 그것들을 더욱 자주,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항상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경탄과 경외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인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우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 『실천 이성 비판』 -



◎ 칸트(Kant, I., 1724~1804)

칸트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한 상인이 마땅히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정하게 판매한다면, 이 상인의 행위는 도덕적이다. 하지만 이 상인의 행위가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얻어 장기적으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덕적인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5

질문 톡

❶ 칸트는 왜 정언 명령만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나요?

A 칸트는 정언 명령을 개인 명령과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개인 명령이란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을 말합니다. 그 목적에는 건강, 부, 명예, 행복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칸트는 도덕의 원리가 개인 명령으로 되어 있다면, 도덕은 욕구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명령인 정언 명령만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 법칙은 인간에게 명령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능적 욕구를 지녔기 때문에 선의지를 저절로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도덕 법칙을 정언 명령의 정식으로 제시하였다. 정언 명령은 ‘무조건 ○○하라.’와 같은 절대적인 명령의 형식을 취한다. 그리고 정언 명령의 핵심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이다.

10

나는 과연 거짓 약속이 의무에 맞는가 어떤가 하는 이 과제에 대한 답을 아주 간략하게 그려면서도 속임수 없이 제시하기 위해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 나는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통해 곤경에서 벗어난다는) 나의 준칙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보편적 법칙으로 타당해야 한다는 것에 정말로 만족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든 그가 거기에서 다른 방도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다면 진실하지 못한 약속을 할 수도 있다고 정말로 나에게 말할 수 있는가?

15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

| 준칙

각 개인이 나름대로 정립한 행위의 규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침 일찍 눈을 뜨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매일 일찍 일어난다.’라는 준칙을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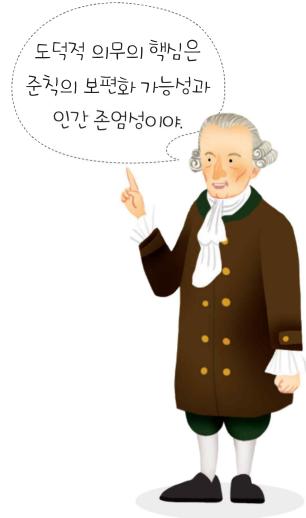
이처럼 우리는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면 모든 사람이 그런 방식으로 행위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한다. 이는 자신을 위한 예외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칸트는 도덕 법칙으로서 정언 명령을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와 같은 정식(定式)으로 제시하였다.

20

또한 칸트에 따르면 욕구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보편적 도덕 법칙을 수립하여 이를 따르려는 인간의 의지는 고귀하며, 이러한 의지의 자율성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가 된다. 모든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지닌 인격체로서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인간이나 특정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5 이에 칸트는 정언 명령을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것은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이다.

10 인간이 인간다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욕구를 극복하고 도덕 법칙에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칸트의 윤리 사상은 도덕을 인간다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게 함으로써 도덕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칸트의 윤리 사상은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나 인간 존엄성을 도덕적 의무의 핵심에 놓음으로써 우리의 일상적인 도덕의식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15 하지만 칸트 윤리 사상은 도덕 법칙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고, 행위의 결과에 대한 판단을 배제한 채 오로지 의무에 따른 행위만을 도덕적 행위로 인정하는 등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정언 명령은 단지 형식일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도덕적 의무가 상충할 경우에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탐구와 성찰

칸트 윤리 사상의 비판적 평가

» 사상의 관점 성찰하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어떤 죄 없는 Y라는 사람이 그를 죽이려는 갭들에게 숨겨 당신에게 숨겨 달라고 빌면서 당신 집의 문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해 보라. 당신은 그를 들어오게 해서 3층 다락방에 숨겨 준다. 잠시 후에 갭들이 도착해 “Y가 당신 집 안에 있지?” 하고 말하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추궁한다. 당신은 어떻게 말해야만 하는가?

– 루이스 포이만·제임스 피저, 『윤리학』 –



-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칸트라면 어떻게 말할지 예상해 보고, 그 대답을 평가해 보자.

참고
물음

-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 이유와 함께 써 보자.